



인도네시아 한국기업의 임금체불과 인권유린 해결 및 개선방안

「동남아시아 입문」과 「매스콤과 현대사회」강의페어링
경영학과, 김지용, 202021420, 신호재 교수님 지도

목적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일은 예전부터 빈번하였으며, 현재진행형으로 그 횟수가 늘어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인구와 더불어 값싸고 관찮은 질의 노동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고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인권유린을 하고있다. 이는 십수년전부터 진행되어온 일이다. 그동안 문대통령의 해결촉구,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대사관 앞 시위 등 많은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입문’과 ‘현대사회와 매스콤’ 강의를 페어링하여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찾아보려한다.

‘동남아시아 입문’ 에서의 강의페어링

동남아시아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무역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 수를 가지고있고 경쟁성장률 또한 가파르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맡을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며, 한국기업의 임금체불 및 인권유린 문제가 이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한다.

‘매스콤과 현대사회’ 에서의 강의페어링

‘의제설정이론’은 미디어,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주요 이슈가 된다는 이론이다. 특정 내용을 반복적으로, 많은 시공간을 할애하며 집중 보도하면 대중들이 이를 심각한/중요한 사회의 이슈로 이해하며 공론화가 되기 십상이다. 이를 활용하면 별 것 아니던 일도 사회 주요 이슈로 만들 수 있다.

서론

현재 한국 기업들에 임금체불 및 인권유린을 당한 인도네시아 노동 피해자들은 한국 대사관 앞 시위, 국제노조 고발 등의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국 대사들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계 인사들의 해결촉구 지시와 같은 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인도네시아에서의 임금체불 및 인권유린 문제가 큰 문제라고 인식되고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빈부격차가 매우 큰 인도네시아에서의 노동자들은 매우 고달픈 삶을 살고있다. 노동계층의 평균 임금은 약 300~500만 루피아(한화 30~50만원)정도인데, 대부분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지급받는다. 인도네시아의 한국기업들의 일부 악덕 사장들은 이들에게 봉급을 인질로 성희롱, 폭행 등과 같은 인권유린은 물론 지불해야할 임금을 미루고 미루다 야반도주해버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자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매스콤을 활용한 공론화와 해결 및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인도네시아의 한국기업들의 인권 유린 및 임금 체불 관련 이슈를 검색해보았을 때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수개월 단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이 이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잠시동안만 기억되고 수일안에 다른 이슈들에 가려진다. ‘의제설정 이론’을 사용하여 관심도를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파급력이 큰 ‘그것이 알고싶다’, ‘PD 수첩’과 같은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들에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가정들의 피해를 생생히 담아 수편에 걸쳐 내보낸다면 국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또한 뉴스와 신문과 같은 미디어들도 여태 해왔던 간헐적 보도가 아닌 꾸준한 보도를 지속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각인 시킬 수 있다. 공론화와 관심도 상승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사례로는 한인 남성들이 필리핀에 가 현지 여성과 아이를 가진 후 도피하는 ‘코피노’ 문제는 한때 여러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미디어에서 집중보도가 된 적 있다. 완전한 문제 해결은 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대부분 지성인들은 ‘코피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결론

- ‘의제설정이론’을 사용하여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어온 인도네시아의 한국기업들의 현지 노동자 인권유린 및 임금체불 문제의
- 범국민적 관심도 상승
 - 현지 노동자들의 고충과 고난을 생생히 전달
 - 사회 주요 이슈로 인식
 - 인권 단체, 노조, 대사관 등의 더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해결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임금체불 후 야반도주 속출’, [부산일보] (2009)
‘동남아 한국 기업 임금체불·인권침해 없도록...정부 지원 강화’,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20)
‘코피노 4만명 "한국인, 피임도 안해...적어준 주소엔 욕설뿐"', [중앙일보], 체혜선 기자 (2018)

